

# 익사이팅박스

〈익사이팅박스〉 시리즈는 폭넓은 주제와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로 아이들의 독서 지평을 넓혀 줍니다. 레벨1, 레벨2, 레벨3으로 구성된 좋은 도서들과 책 읽기가 더욱 즐거워지는 독후 활동지로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 보세요.

🌟 레벨1 : 초등 1-2학년 이상    🌟 레벨2 : 초등 3-4학년 이상    🌟 레벨3 : 초등 5-6학년 이상



익사이팅박스의 **독후 활동지(워크시트)**와 정답은 **미래엔 아이세움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iseum>)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NEW



# 놀이동산에서 3년

미래엔 아이세움 | 조성자 글 | 이영림 그림 | 104쪽

1단계

**독서 준비**

놀이동산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거나 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나 놀이 기구를 갖추어 놓은 곳을 말해요. 놀이동산에서 가장 타 보고 싶은 놀이 기구나, 가장 좋아하는 놀이 기구를 그림으로 그려 보고 어떤 놀이 기구인지 설명해 보세요.

《놀이동산에서 3년》의 표지와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의 책일지 상상해 보세요.




---



---



---



---



---



---



# 놀이동산에서 3년

## 독서

다음은 《놀이동산에서 3년》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책 내용과 그림 속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차례대로 적어 보세요.

## 보기 / 출구 / 휴대 전화 / 덕분에 / 여섯 / 믿음 / 귀신의 집



1	3	5
2	4	6

## 독서 후

친구들과 함께 귀신의 집에 갇혔던 상아는 무서웠지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불평을 멈추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과 ‘덕분에’라는 말이 두려움을 걷어 내고 기분 좋은 기운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엄마와 함께 무사히 집에 돌아간 상아는 과연 오늘 일기에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을까요? 내가 상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놀이동산에 간 날의 일기를 써 보세요.

월

일

날씨:



제목:





# 놀이동산에서 3년

미래엔 아이세움 | 조성자 글 | 이영림 그림 | 104쪽

## 1단계

### 독서 준비

놀이동산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거나 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나 놀이 기구를 갖추어 놓은 곳을 말해요. 놀이동산에서 가장 타 보고 싶은 놀이 기구나, 가장 좋아하는 놀이 기구를 그림으로 그려 보고 어떤 놀이 기구인지 설명해 보세요.

#### 폭포 배

파도가 치는 물길에서 배를 타고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높은 곳에서  
아래로 뚝 미끄러져 내려가는 놀이 기구

#### 화전목마

여러 개의 말 인형이나 화려한  
마차에 타고 밝은 노래를 들으며  
빙글빙글 도는 놀이 기구 등

《놀이동산에서 3년》의 표지와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의 책일지 상상해 보세요.



표지에 나온 여자아이의 표정이

밝은 것으로 보아 놀이동산에서 일어나는  
신나는 일들을 담은 책./

표지에 고양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양이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 같은 책.





# 놀이동산에서 3년

## 독서

다음은 《놀이동산에서 3년》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책 내용과 그림 속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차례대로 적어 보세요.

## 보기 / 출구 / 휴대 전화 / 덕분에 / 여섯 / 믿음 / 귀신의 집



<u>1</u> 귀신의 집	<u>3</u> 출구	<u>5</u> 휴대 전화
<u>2</u> 여섯	<u>4</u> 덕분에	<u>6</u> 믿음

## 독서 후

친구들과 함께 귀신의 집에 갇혔던 상아는 무서웠지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불평을 멈추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과 ‘덕분에’라는 말이 두려움을 걷어 내고 기분 좋은 기운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엄마와 함께 무사히 집에 돌아간 상아는 과연 오늘 일기에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을까요? 내가 상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놀이동산에 간 날의 일기를 써 보세요.

7 월

15 일

날씨:



## 제목: 놀이동산에서 3년

오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내가 이번에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에 갇힌 것이다.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려 견딜 수 없었지만, 지난 경험들을 떠올리며 차분히 생각하다니 보니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에 내가 미궁에 들어간 테세우스가 된 기분도 느껴지고 말이다. 비록 아이들이 서로의 탓을 하며 마구 싸워 대긴 했지만, 우리 여섯은 ‘덕분에’란 말의 힘을 깨닫고 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 문 밖에서 빛이 새어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던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게는 3년처럼 길었던 그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거다. 그리고 함께 용기를 내 준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해 주고 싶다. 수빈아, 서지야, 희지야, 교휘야, 동연아, 고마워! 너희는 정말 멋진 친구들이야!



**TIP** 책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1인칭 시점으로, 책 내용과 독서 후 감상이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